

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I. 주요국 경제 동향	1
II. 국내 경제 동향	4
I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7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10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12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양종서 (3779-6679)
 flydon@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강정화 (3779-5327)
 niceka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성동원 (3779-6680)
 dwsung@koreaexim.go.kr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조 사 역 나혜영 (3779-5709)
 nhy@koreaexim.go.kr

I. 주요국 경제 동향

1. 미국

□ 생산·소비·고용 등 실물경기지표 양호, 견조한 성장세 지속 전망

- (산업동향) 허리케인의 악영향에서 벗어나며 9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증가 전환**[8월:△0.7→9월:0.3%], 제조업지수*는 '04년 5월 이후 최고치(60.8) 기록, 9월 소매판매는 자동차, 휘발유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대폭 증가**[8월:△0.1%→9월:1.6%]

*ISM 제조업지수(기준=50): ('17.6)57.8 → (7)56.3 → (8)58.8 → (9)60.8

- (수출입) 8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4.2% 증가**[7월:5.0%]한 **1,953억 달러**, 8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4.0% 증가**[7월:5.1%]한 **2,377억 달러** 기록하여 **증가세 소폭 둔화**
- (고용·물가) 8월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1.3%)이 연준 목표치(2.0%)를 미달 하였으나,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2% 상승**하여 4개월 연속 오름세 시현, 9월 실업률은 전월대비 0.2%p 감소한 **4.2%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근원PCE물가지수 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17.5)1.5 → (6)1.5 → (7)1.4 → (8)1.3

2. 유로존

□ 생산·수출 등 실물지표 개선세 지속, 9월 경기체감지수는 10년래 최고치(113) 기록

- (산업동향) 8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4% 증가**[7월:0.3%]하여 9개월래 최대 증가폭 시현, 9월 제조업 PMI*도 상승세 지속(79개월래 최고치), 8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5% 감소**하여 두 달 연속 하락[7월:△0.3%]

*제조업 PMI(기준=50): ('17.6) 57.4→ (7) 56.6 → (8) 57.4 → (9) 58.1

- (수출입) 8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13.6% 증가**[7월:12.9%]한 **2,176억 달러**, 8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7월:15.5%]한 **1,920억 달러**로 **증가폭 확대**

- 유로화 기준으로는 8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6.7%, 8.7% 증가[7월:6.6%, 9.1%]

- (고용·물가) 8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9.1%**로 '09.2월 이후 최저 수준 유지 하였으나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5% 상승**하여 테이퍼링(QE 축소)에 부담으로 작용

3. 일본

□ 산업생산 증가 전환, 수출 증가세 확대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

- (산업동향) 8월 산업생산이 전월대비 **2.0%**로 증가 전환[7월:△0.8%], 9월 제조업 PMI*는 13개월 연속 기준선(50) 상회, 8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1.6%**로 감소 전환[7월:1.1%]

*제조업 PMI(기준=50): ('17.6) 52.4 → (7) 52.1 → (8) 52.2 → (9) 52.9

- (수출입) 8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8.6%** 증가[7월:6.5%]한 **597억 달러**, 8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9.2%** 증가[7월:6.0%]한 **564억 달러** 기록하며 증가폭 확대

- 엔화 기준으로는 8월 수출, 수입 각각 전년동기대비 15.9%, 16.5% 증가[7월:14.8%, 14.3%]

- (고용·물가) 8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2.8%**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 8월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0.7%** 상승*[7월:0.4%]하여 低물가 지속

* 15일(현지시간) WSJ에 따르면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워싱턴 G30 국제은행 연례 세미나에서 “2%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가능한 빨리 물가안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힘

4. 중국

□ 생산·소비 증가세 강화, 투자는 부동산 과열 억제 등으로 증가세 둔화

- (산업동향) 9월 산업생산 전년동기대비 **6.6%** 증가[8월:6.0%], 9월 소매판매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8월:10.1%]하여 증가폭 확대, 9월 제조업 PMI*는 '12년 5월 이후 최고치(52.4) 기록

*제조업 PMI(기준=50): ('17.6) 51.7 → (7) 51.4 → (8) 51.7 → (9) 52.4

- (수출입) 9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8.1%** 증가한 **1,983억 달러**[8월:5.6%], 9월 수입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한 **1,698억 달러**[8월:13.5%] 기록하여 증가폭 확대

- (물가)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1.6%** 상승하여 다소 둔화[8월:1.8%]

※ 중국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조사실업률”이 아닌 “등기실업률”을 발표(4% 내외), 실제 실업률과 상당 부분 차이가 있으므로 신뢰 가능한 지표 개발 전까지 고용 관련 내용 생략

<참고> 해외경제 주요 지표

(증감률, %)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미 국	GDP성장률(전기비)	2.9	1.5	0.5	0.7	0.4	0.3	0.8	-	-	-
	산업생산(전기비)	△0.7	△1.2	△0.2	0.2	0.2	0.4	1.3	△0.1	△0.7	0.3
	소매판매(전기비)	2.6	3.0	1.5	0.9	1.5	1.0	0.3	0.5	△0.1	1.6
	수출(전년동기비)	△4.7	△2.5	△4.6	△0.6	1.4	6.8	5.7	5.0	4.2	-
	수입(전년동기비)	△3.6	△1.9	△3.7	△1.4	2.7	7.3	6.6	5.1	4.0	-
	실업률	5.3	4.9	4.9	4.9	4.7	4.7	4.4	4.3	4.4	4.2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1	1.3	1.1	1.1	1.8	2.6	1.9	1.7	1.9	2.2
유 로 지 역	GDP성장률(전기비)	2.0	1.8	0.3	0.4	0.6	0.6	0.7	-	-	-
	산업생산(전기비)	2.1	1.5	△0.1	0.3	1.0	0.2	1.2	0.3	1.4	-
	소매판매(전기비)	2.7	1.5	0.3	0.6	0.9	0.3	1.0	△0.3	△0.5	-
	수출(전년동기비)	△12.4	0.2	△1.9	1.2	2.2	4.0	7.8	12.9	13.6	-
	수입(전년동기비)	△14.6	△1.3	△4.6	△0.5	2.4	7.5	11.7	15.5	15.8	-
	실업률	10.9	10.0	10.1	9.9	9.7	9.5	9.2	9.1	9.1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0	0.2	△0.1	0.3	0.7	1.8	1.5	1.3	1.5	1.5
일 본	GDP성장률(전기비)	1.1	1.0	0.3	0.3	0.4	0.4	1.0	-	-	-
	산업생산(전기비)	△1.2	△0.2	0.2	1.6	1.9	0.2	2.1	△0.8	2.0	-
	소매판매(전기비)	△0.4	△0.5	0.0	0.5	1.5	△0.2	0.7	1.1	△1.6	-
	수출(전년동기비)	△8.8	2.3	3.2	7.3	6.4	12.8	6.2	6.5	8.6	-
	수입(전년동기비)	△19.8	△6.5	△7.3	△3.0	0.6	11.9	10.9	6.0	9.2	-
	실업률	3.4	3.1	3.2	3.0	3.1	2.9	2.9	2.8	2.8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0.8	△0.1	△0.4	△0.5	0.3	0.3	0.4	0.4	0.7	-
중 국	GDP성장률(전기비)	6.9	6.7	1.9	1.8	1.7	1.3	1.7	-	-	-
	산업생산(전년동기비)	6.1	6.0	6.1	6.2	6.1	6.8	6.9	6.4	6.0	6.6
	소매판매(전년동기비)	10.7	10.4	10.2	10.5	10.6	10.9	10.8	10.4	10.1	10.3
	수출(전년동기비)	△3.0	△7.7	△6.4	△7.0	△5.3	7.9	9.4	7.2	5.6	8.1
	수입(전년동기비)	△14.3	△5.5	△7.1	△4.4	2.7	24.1	14.7	11.0	13.5	18.7
	실업률 ²⁾	4.1	4.0	4.1	4.0	4.0	4.0	4.0	-	-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4	2.0	2.1	1.7	2.2	1.4	1.4	1.4	1.8	1.6

주 : 1) '17년 3월호부터 수출액·수입액 기준통화를 USD로 통일함에 따라 증감률에 변동이 있음

변경 전	
(기재부 「최근경제동향」기준)	
미국, 중국	USD
유로지역	EUR
일본	JPY

변경 후	
(Bloomberg 기준)	
미국, 유로지역, 일본, 중국	USD

2)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실업률은 등기실업률로, 비농업호구·나이제한·노동능력 보유·실업보험 납부기간 1년 이상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자로 등록이 가능

3)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Bloomberg,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Ⅱ. 국내 경제 동향

1. 산업활동 :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설비투자·건설기성이 모두 감소하며 내수 회복세 지연

□ (생산) 8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16.6 <전년동월대비 2.6% 증가>

- 건설업(△2.0%)에서 감소하였으나, 광공업(0.4%), 서비스업(0.1%)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과 동일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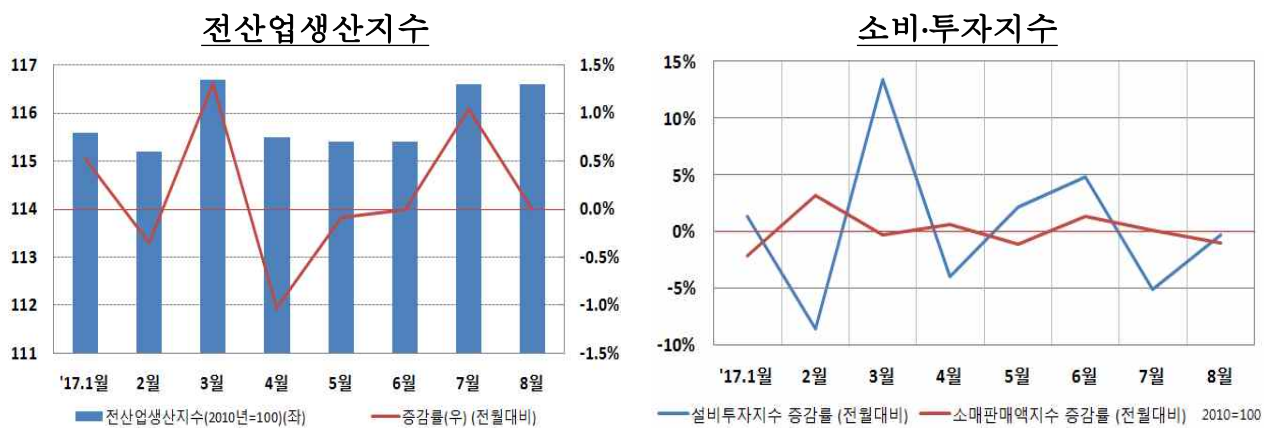
□ (소비) 8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1.0% 감소 <전년동월대비 0.8% 증가>

- 신발 및 가방 등 준내구재(0.3%) 판매는 증가하였으나, 가전제품 등 내구재(△2.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5)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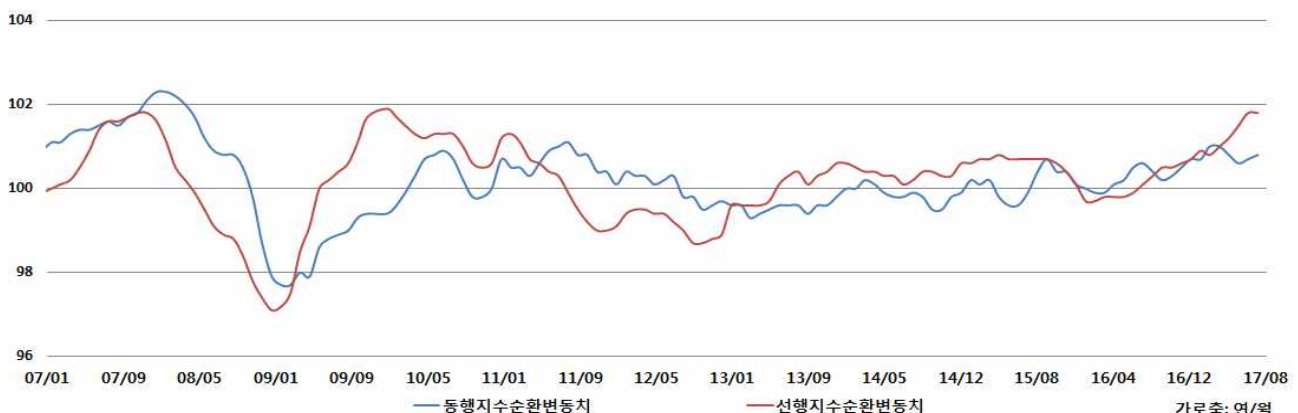
□ (투자) 8월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0.3% 감소 <전년동월대비 13.2% 증가>,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2.0 감소 <전년동월대비 8.1% 증가>

- 설비투자는 일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줄어 전월대비 감소, 건설기성(불변)은 토목 공사 실적이 줄어 전월대비 감소

□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한 100.8,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101.8(2010=100)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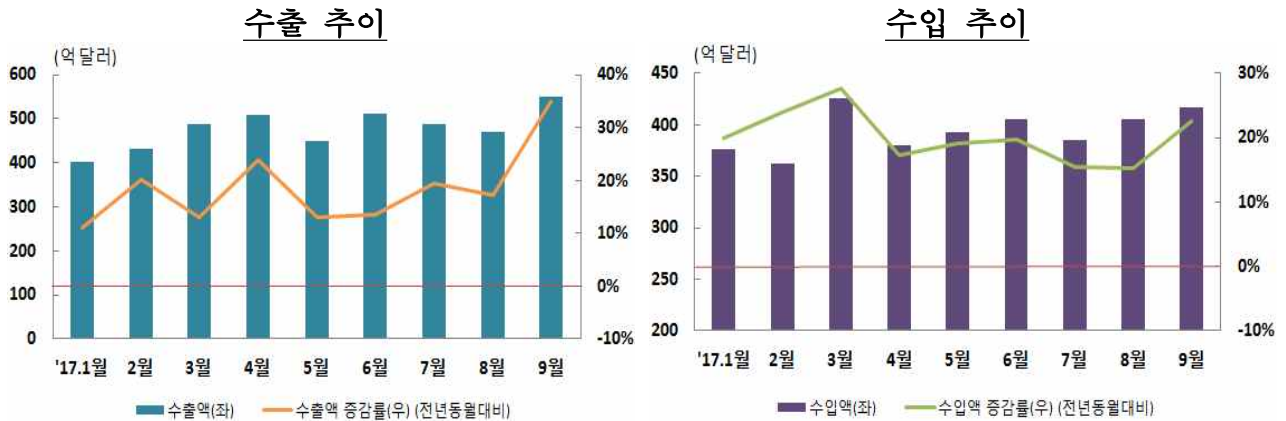
2. 수출입 현황

□ (수출) 9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35.0% 증가**[8월:17.3%]한 **55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 반도체(73.5%)·철강제품(82.7%)·석유제품(49.4%)·승용차(61.7%) 등 증가, 자동차 부품(Δ 5.1%)·무선통신기기(Δ 3.2%)·액정디바이스(Δ 14.2%) 등 감소

□ (수입) 9월 수입 전년동월대비 **22.6% 증가**[8월:15.3%]한 **417억 달러**로 증가세 지속

- 의류·조제식품·가전제품 등 소비재(13.5%), 원유·석탄·가스·나프타 등 원자재(22.4%), 반도체·기계류·제조용장비 등 자본재(27.3%)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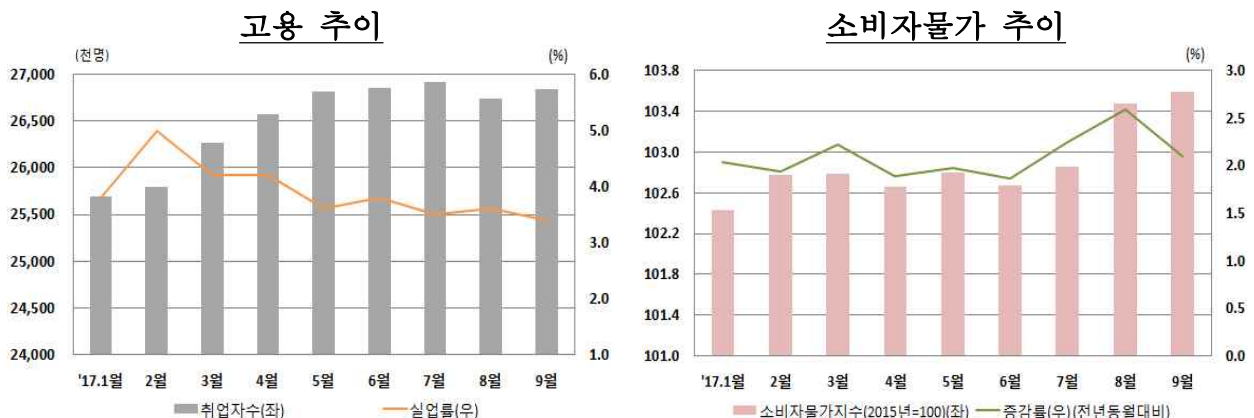
3. 고용 및 물가

□ (고용) 취업자 수 증가폭 30만명대 회복(전년동월대비), 청년 체감실업률은 악화

- 9월 취업자는 2,684만 4천명,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한 **61.3%**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만 4천명)에서 감소하였으나, 건설업(10만 8천명),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9만 8천명) 등에서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31만 4천 명 증가
- 9월 실업자 93만 5천명,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9월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9.2%**,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한 **21.5%**

□ (물가) 9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1% 상승** <전월대비 0.1% 상승>

- 주택·수도·전기·연료(3.9%), 식료품·비주류음료(3.3%), 음식·숙박(2.4%), 교통(2.7%), 기타상품·서비스(2.7%) 등 11개 부문 상승, 오락·문화(Δ 1.4%)는 하락



〈참고〉 국내경제 주요 지표

구 분	‘15년	‘16년				‘17년				
		연간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GDP성장률(전기비,%)	2.8	2.8	0.9	0.5	0.5	1.1	0.6	-	-	-
전산업생산지수 ¹⁾	-	-	112.9	113.9	114.3	115.8	115.4	116.6	116.6	-
증감률(전기비,%)	-	-	1.3	0.9	0.4	1.3	△0.3	1.0	0.0	-
소매판매액지수 ¹⁾	-	-	120.0	118.6	121.1	120.5	122.0	122.7	121.5	-
증감률(전기비,%)	-	-	2.0	△1.2	2.1	△0.5	1.2	0.1	△1.0	-
설비투자지수 ¹⁾	-	-	110.5	108.4	117.1	123.7	129.2	127.4	127.0	-
증감률(전기비,%)	-	-	5.1	△1.9	8.0	5.6	4.4	△5.1	△0.3	-
수출액(억불) ²⁾	5,268	4,954	1,260	1,219	1,324	1,321	1,471	488	471	551
증감률(전년동기비,%)	△8.0	△5.9	△6.7	△5.0	1.8	14.7	16.7	19.5	17.3	35.0
수입액(억불) ²⁾	4,365	4,062	993	1,025	1,106	1,163	1,179	386	405	417
증감률(전년동기비,%)	△16.9	△6.9	△10.1	△5.1	4.1	24.0	18.7	15.5	15.3	22.6
실업률 ³⁾ (%)	3.6	3.7	3.8	3.6	3.2	4.3	3.9	3.5	3.6	3.4
소비자물가지수 ⁴⁾	100.0	101.0	100.8	101.0	101.5	102.7	102.7	102.9	103.5	103.6
증감률(전년동기비,%)	0.7	1.0	0.8	0.7	1.5	2.1	1.9	2.2	2.6	2.1

주 : 1) 계절조정지수(seasonally adjusted index, 2010년=100) 2)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수리일 기준
3) 원계열(original series) 4) 2015년=100
5) 최근 수치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자료 : 기획재정부, 관세청, 통계청

Ⅲ.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1. 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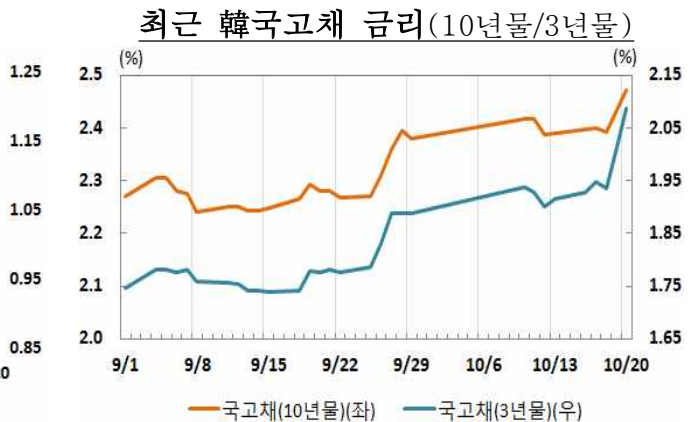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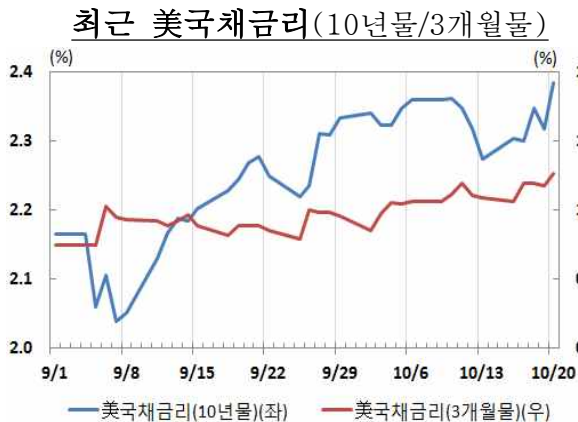
□ **美장기금리**는 미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기대 강화, 세계개편안 기대감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 양호한 경제지표 등으로 **상승**, **美단기금리**도 **동반 상승**

- **미국채(3M,%):** 1.000(9.1) → 1.020(10.2) → 1.088(10.11) → 1.103(10.20)

- **미국채(10Y,%):** 2.166(9.1) → 2.341(10.2) → 2.348(10.11) → 2.385(10.20)

○ **국고채금리(韓)**는 9월말 외국인 현물 대량 매도가 가격에 반영되며 상승, 이후 금융통화위원회(10.19)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오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2.8%→3.0%)되며 단기물을 중심으로 급등, 현재 금리레벨은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한 차례 이상 반영한 수준

- **국고채(10년물,%):** 2.271(9.1) → 2.379(9.29) → 2.418(10.11) → 2.471(10.20)



2. 환율 동향

□ **(국제환율) 美 달러화**, 엘런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연내 금리인상 기대감, 경제지표 호조 등으로 **소폭 반등**

* 엘런 의장은 9월 26일(현지시간) 전미실물경제협회 연설에서 “통화정책이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할 때까지 통화정책을 동결하는 것은 현명치 못할 것”이라고 발언

- **달러인덱스:** 92.8(9.1) → 93.6(10.2) → 93.0(10.11) → 93.7(10.20)

○ **유로화**는 독일 총선에서의 극우정당 약진(9.24,현지시간), 스페인 카탈루냐 독립 투표 유혈 사태(10.1,현지시간) 등으로 월초 약세, 이후 카탈루냐 사태 관련 우려 완화 및 긍정적 경제 전망 등으로 반등

- **달러/유로:** 1.186(9.1) → 1.173(10.2) → 1.186(10.11) → 1.178(10.20)

- **엔화**는 북한 리스크 완화 및 자민당의 총선 압승 기대감에 따른 아베노믹스(양적완화 정책) 가속화 전망 등으로 **약세**

- 엔/달러: 110.3(9.1) → 112.8(10.2) → 112.5(10.11) → 113.5(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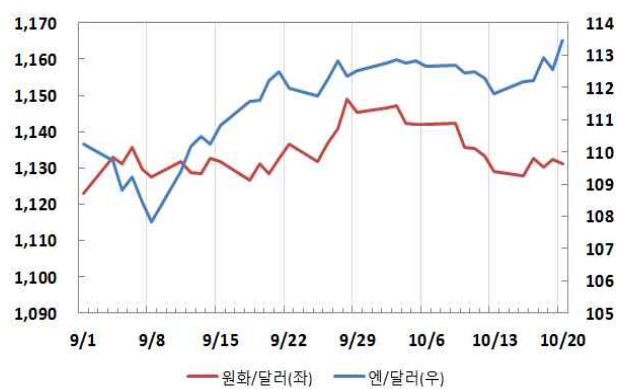
- **(원화환율)** 북핵 리스크로 높아져 있던 환율은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집중 유입되며 원화수요가 증가하여 하락,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도 외국인 자본유출 위험을 감소시키며 원화강세 요인으로 작용

- 원화/달러: 1,123(9.1) → 1,147(10.1) → 1,135(10.11) → 1,131(10.20)

달러 지수



달러 환율(對원화, 對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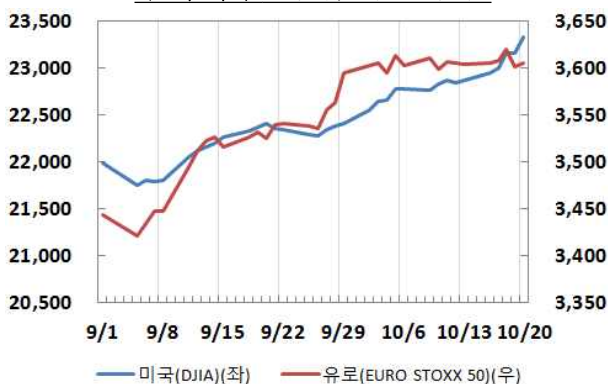


3. 주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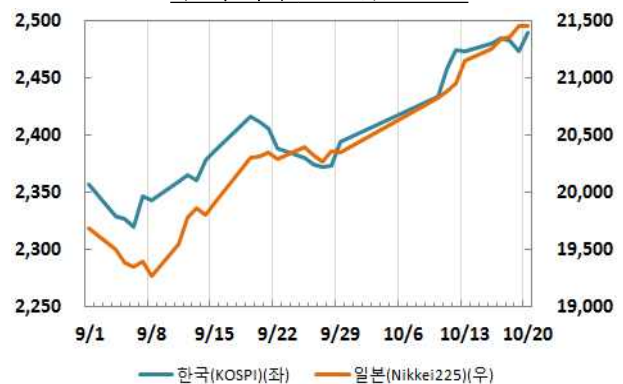
-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세계개편안 발표(9.27), 3분기 어닝시즌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하여 사상 첫 23,000선 돌파, **코스피 지수**도 글로벌 증시 호조, IT대장주 실적 기대감, 북한 리스크 완화 등으로 연휴 이후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며 대폭 상승

구 분		‘17.9.1	‘17.10.10	‘17.10.20
미국	Dow Jones	21,988	22,831	23,329
유로	Euro Stoxx	3,444	3,599	3,605
한국	KOSPI	2,358	2,434	2,490
일본	Nikkei225	19,691	20,824	21,458

주가지수(미국, 유로지역)



주가지수(한국, 일본)



<참고>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15년	'16년			'17년				
				2/4	3/4	4/4	1/4	2/4	8월	9월	10.20
금리 (%)	정책	미국 FF금리 ¹⁾		0.25-0.50		0.50-0.75	0.75-1.00	1.00-1.25			
		일본 IOER금리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유로존 금리	0.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	미국 국채(3M) ²⁾	0.163	0.259	0.274	0.497	0.752	1.011	0.991	1.041	1.103
		미국 국채(10Y) ²⁾	2.269	1.470	1.594	2.444	2.387	2.304	2.117	2.334	2.385
		일본 국채(10Y) ³⁾	0.267	△0.237	△0.084	0.043	0.067	0.086	0.008	0.062	0.074
	국내 ⁴⁾	국고채(3Y)	1.662	1.247	1.247	1.638	1.662	1.698	1.747	1.888	2.088
		국고채(10Y)	2.076	1.469	1.398	2.074	2.177	2.214	2.262	2.379	2.471
	국제환율 ⁵⁾	¥ / U S \$	120.2	103.2	101.4	117.0	111.4	112.4	110.0	112.5	113.5
		U S \$ / €	1.086	1.111	1.124	1.052	1.065	1.143	1.191	1.181	1.178
원화환율 ⁵⁾		₩ / U S \$	1,175	1,152	1,101	1,206	1,118	1,144	1,128	1,145	1,131
		₩ / 1 0 0 ¥	977	1,116	1,087	1,031	1,004	1,019	1,024	1,018	997
주가 ⁵⁾		미국 Dow Jones	17,425	17,930	18,308	19,763	20,663	21,350	21,948	22,405	23,329
		일본 Nikkei225	19,034	15,576	16,450	19,114	18,909	20,033	19,646	20,356	21,458
		유로 Euro Stoxx	3,268	2,865	3,002	3,291	3,501	3,442	3,421	3,595	3,605
		코스피	1,961	1,970	2,044	2,026	2,160	2,392	2,363	2,394	2,490
		코스닥	682	675	681	631	619	669	658	653	673

주 : 1) '16년 12월 14일, '17년 3월 15일, '17년 6월 14일 각각 0.25bp 인상
 2) 블룸버그 집계 (BGN,Bloomberg Generic Price) 미국 일반국채 수익률(3개월, 10년)
 3) 일본 재무성, Japanese Government Bonds
 4) 금융투자협회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5) 블룸버그

자료 : 블룸버그, 일본 재무성, 금융투자협회

IV. 국제자원시장 동향

□ 유가 : 공급 과잉 우려 완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유가 상승

- OPEC 감산합의의 원활한 이행, 미 원유재고 감소 등 공급 과잉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강경정책 발표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유가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중 최고치 경신(\$56.33/bbl, 두바이유, 10.17일)
- 10월 13일 주 기준 미 원유재고량이 전주대비 573만 배럴 감소하며 당초 390만 배럴이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치 상회
- 트럼프 대통령이 핵협정을 포함한 대이란 정책을 발표하며 이란의 핵협정 준수 여부를 ‘불인증(decertification)’한다고 선언하는 등 추가제재 가능성 증가

□ 천연가스 가격 : 여름철 성수기 시즌 종료로 mmBtu당 2달러 후반대로 하락

- 미 여름철 성수기 시즌 종료에 따른 냉방수요 기대감 둔화로 천연가스 가격이 9월 중순 mmBtu당 3달러선에서 10월 중순 2달러 후반대로 하락

□ 연료탄 가격 : 9월 중순 연중최고치 기록 이후 소폭 하락

- 중국 등 여름철 전력 사용 증가에 따른 석탄수요 증가와 글로벌 생산 감소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어, 9월 중순 톤당 100달러대를 돌파하며 연중 최고치를 갱신한 이후 냉방수요 감소 등으로 소폭 하락하여 10월 중순 90달러 중반대 기록

□ 주요 광물자원 가격 : 전기동 등 비철금속은 가격강세 지속, 철광석 하락 이후 보합세, 우라늄 가격 약세 지속

- 전기동 가격은 중국 수요 증가 기대감, 세계 1위 구리 광산국인 칠레의 지진 발생 등으로 가격상승세를 지속하며 10월 중순 연중최고치 경신
- 니켈은 9월초 연중최고치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중국 국경절 연휴 이후 철강시장 반등 신호 등으로 특수강 원재료인 니켈 가격 강세 지속
- 아연 가격은 중국의 광산 환경감사에 따른 생산감소 우려 등 수급 타이트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10월 초 10년래 최고치 기록
- 철광석 가격은 중국 철광석 수요 부진 우려로 8월말 이후 하락세로 전환, 10월 들어 톤당 60달러 초반대에서 보합세
- 우라늄은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로 6월 초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파운드당 20달러선의 가격약세 지속

주요 자원가격 추이

(기말 종가 기준)

구 분		2016년	2017년					
			1/4	2/4	3/4	10.19일	연중 최고	연중 최저
유가 (\$/배럴)	Brent	56.82	52.83	48.77	56.79	57.23	58.43 (9.25.)	44.82 (6.21.)
	WTI	53.72	50.6	46.04	51.67	51.51	54.45 (2.23.)	42.53 (6.21.)
	Dubai	53.83	50.78	46.47	55.19	55.51	56.33 (10.17.)	43.50 (6.22.)
천연가스 (\$/백만BTU*)		3.724	3.190	3.035	3.007	2.873	3.424 (5.12.)	2.564 (2.21.)
연료탄(전력용) (\$/ton)		92.00	82.6	80.25	93.18	95.95	100.25 (9.15.)	73.15 (5.19.)
우라늄 (\$/lb)		20.4	23.25	20.5	20.25	20.30	26.75 (2.10.)	19.15 (6.5.)
철광석 (\$/ton)		78.87	80.39	64.95	62.05	60.88	94.86 (2.21.)	53.36 (6.13.)
전기동 (\$/ton)		5,501	5,849	5,908	6,485	6,920	7,063 (10.16.)	5,466 (5.8.)
니켈 (\$/ton)		10,035	9,875	9,280	10,585	11,680	12,150 (9.5.)	8,715 (6.2.)
아연 (\$/ton)		2,563	2,783	2,754	3,217	3,170	3,370 (10.4.)	2,436 (6.13.)

주 : 유가는 WTI유 선물 익월물/브렌트유 ICE 익월물/두바이유 현물가격, 천연가스/우라늄은 뉴욕 상업거래소(NYMEX), 연료탄은 뉴캐슬 FOB, 철광석은 Fines 현물가격으로 중국수입가 CFR, 전기동/니켈/아연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BTU : British Thermal Unit

자료 : 국제금융센터, KoreaPDS

EIA의 국제유가 전망

(단위: \$/bbl)

기준 유종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평균	1/4	2/4	3/4	4/4	평균
WTI	48.67	43.33	51.64	48.15	48.13	50.85	49.69
Brent	52.32	43.74	53.57	49.59	52.09	54.52	52.43

주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전망시기: 2017년 10월>, 회색부분이 전망치

V. 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

□ 조선: 9월 수주는 대형선 위주로 비교적 활발한 양상

- '17년 9월 기준 누적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295% 증가한 504만CGT를 기록
 - 9월 수주량은 초대형 광석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VLCC 등 주로 대형선 위주의 수주로 최근 크게 부진하였던 7,8월의 실적을 만회하며 전년동월대비 648% 증가한 146만CGT를 기록
- '17년 9월 기준 누적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48% 증가한 121.5억 달러를 기록
 - 9월 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399.5% 증가한 20.4억 달러
- Clarkson의 9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37 point 상승한 124.30을 기록
- 9월 누적 선박수출은 건조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해양플랜트 인도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36.7% 증가한 355.2억 달러

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4	2/4	3/4	9월
수주 실적	304.7 (△40.0)	463.3 (52.0)	329.4 (△28.9)	236.7 (△28.2)	46.1 (△80.9)	121.5 (348.4)	22.3 (375.3)	66.1 (387.2)	33.1 (274.6)	20.4 (399.5)
수출 실적	397.4 (△29.8)	371.7 (△6.5)	398.9 (7.3)	401.7 (0.7)	342.7 (△14.6)	355.2 (36.7)	69.8 (△12.2)	169.4 (60.1)	116.0 (55.6)	31.1 (△38.7)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Clarkson, 무역협회, 산업통상자원부

□ 자원개발: 2017년 세계 탐사·생산 투자 10% 증가 전망

- 2017년 세계 탐사·생산 부문의 자본투자가 육상지역을 중심으로 평균 10% 증가할 전망(Clarkson)
 - 2017년 최종 승인된 프로젝트의 경우, 육상지역 투자가 30% 증가한 반면 해상지역 투자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냄
- 해상 지역은 저유가 지속 등으로 투자 둔화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 국제유가가 상반기에 배럴당 50달러선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한 일부 해상 대형 프로젝트*가 개시되었으나 대부분의 해상 프로젝트는 여전히 경쟁력이 열위에 있다고 평가

* Eni의 모잠비크 Coral South FLNG와 ExxonMobil의 가이아나 Liza 1단계 사업 등

□ 해외건설: 2017년 9월 수주액은 13.5억 달러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중동 수주가 4.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지역 수주는 전년 9.6억 달러에서 3.9억 달러로 감소
- 4분기 대형수주를 기대하지만 현 수주 추이를 감안하면 올해 300억 달러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2017년 10월까지 개발형 사업 수주액은 14.8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6.7%에 불과
 - 개발형 사업 수주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여전히 도급형 위주의 수주가 주를 이루고 있음

해외건설 수주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분기	2분기	3분기	9월
수주실적	649 (9.8)	652 (0)	660 (1.2)	461 (△30.1)	282 (△38.8)	213.3 (13.9)	93.7 (△17.1)	69.4 (75.9)	50.1 (45.2)	13.5 (0)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해외건설협회

□ ICT: 반도체 수출 호조로 역대 최대 월간 수출액인 192.6억 달러를 달성

- 9월 ICT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2.6% 증가한 192.6억 달러, 수입은 23.8% 증가한 90.7억 달러, 수지는 101.9억 달러 흑자를 달성
- 반도체(98.8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73.3%↑)는 메모리반도체(66.6억 달러, 104.0%↑)와 시스템반도체(25.2억 달러, 35.8%↑)의 수출상승세 지속으로 역대 최대 월간 수출액을 달성
- 디스플레이 패널(28.7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8.3%↑)은 OLED(10.1억 달러, 56.2%↑)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11개월 연속 수출증가세 유지
- 휴대폰(18.3억 달러, 전년동월대비 16.6%↓)은 전략폰(갤럭시노트8 등) 출시로 완제품 수출(6.5억 달러, 41.8%↑)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분품 수출(11.9억 달러, 31.9%↓)은 감소세를 지속

ICT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4	2/4	7월	8월	9월
수출실적	1,726.8 (11.2)	1,762.3 (2.1)	1,728.8 (△1.9)	1,625.0 (△6.0)	1,432.9 (21.4)	440.0 (18.1)	468.3 (19.7)	157.1 (20.8)	174.8 (23.8)	192.6 (32.6)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태양광: 9월 모듈 수출액 15.9%, 폴리실리콘 수출액 129% 증가(전년대비)

- 올해 중국 태양광 수요가 40GW를 넘어서는 등 초강세를 기록하고 있어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연초 예상치 75GW를 상회하는 85GW에 달할 전망
- 9월 모듈 수출액은 2.04억 달러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3분기 총 모듈 수출액은 전년대비 12.7% 증가한 5.5억 달러
 - 올해 9월까지 누적 모듈 수출액은 13.2억 달러로 전년대비 8.3% 감소
- 9월 폴리실리콘 수출액은 1.35억 달러로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했으며, 3분기 수출액은 3.3억 달러로 전년대비 27.4% 증가
 - 중국 태양광 수요 증가로 인한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로 수출액도 큰 폭으로 증가

태양광 모듈 및 폴리실리콘 수출실적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1분기	2분기	3분기	9월
태양전지 모듈	9.7 (7.4)	13.2 (△36.1)	18.9 (43.2)	13.2 (△8.3)	3.5 (△19.5)	4.2 (△19.0)	5.5 (12.7)	2.04 (15.9)
폴리실리콘/ 잉곳	13.1 (67.5)	12.7 (△3.6)	12.6 (△0.4)	6.40 (△18.3)	2.82 (△5.4)	2.75 (△25.5)	3.3 (27.4)	1.35 (129)

주 : ()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무역협회

□ 중소기업: 9월 업황 내수·수출 동반 상승

- ‘17년 8월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2% 상승, 평균가동률은 1.1%p 하락
 -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전년동월(102.2) 대비로는 2.2% 상승했으나 전월(108.2) 보다는 3.5% 하락한 104.4 기록
 - 가동률은 ‘식료품’, ‘종이 및 종이제품’ 등 9개 업종에서 상승했으나,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등 11개 업종에서 하락해 전월대비 0.4%p, 전년동월(73.6%)대비로는 1.1%p 하락한 72.5%
- ‘17년 9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17년 8월보다 9.2p 상승한 89.6
 - ※ SBHI(Small Business Health Index)는 중소기업 경기지수(실적기준)로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 100이면 전월과 보합수준 (2010년 이후 최저치 74.3, 최고치 95.6)
 - 내수판매(79.6 → 88.8, 9.2p ↑), 수출판매(83.7 → 91.9, 8.2p ↑), 자금사정(79.0 → 81.5, 2.5p ↑) 등 전 분야에서 크게 상승
- 중소기업대출(+3.8조원 → +5.9조원)은 추석 연휴 전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 확대

중소기업 주요 업황 지수 추이

구 분	구 분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생산지수	(2010년 =100)	103.9 (0.3)	108.6 (0.0)	104.3 (0.0)	110.7 (1.7)	102.0 (-2.0)	108.7 (0.1)	104.0 (-0.3)	115.2 (4.1)	107.3 (5.2)	111.3 (2.4)	108.2 (2.3)	104.4 (2.2)	-
평균가동률	(%)	71.5	72.1	71.8	72.1	72.0	74.0	73.3	73.6	72.7	73.2	72.9	72.5	-
자금대출	(조원)	15.4	16.5	15.8	5.0	9.5	10.1	9.5	1.5	10.3	10.6	4.7	3.8	5.9
중소기업 건강도지수 (SBHI)	경기전반	79.0	82.4	80.8	84.2	78.1	86.6	83.7	81.1	77.9	84.2	83.5	80.4	89.6
	내수판매	78.6	82.1	80.2	84.3	78.1	85.9	83.1	81.9	77.2	83.7	82.5	79.6	88.8
	수출판매	84.4	82.6	80.6	80.4	77.6	86.7	86.0	84.9	86.8	87.9	90.9	83.7	91.9
	자금사정	78.4	80.5	79.7	81.2	77.0	82.8	81.5	79.0	75.5	79.2	79.9	79.0	81.5

주 : 1) 괄호 안은 전년동월·동기 대비 증감률

2) 자금대출은 예금은행 원화대출(은행신탁 포함) 금액으로 기간 중 말잔 증감

3) 중소기업 건강도지수는 2015.1월부터 중소기업 전산업으로 조사범위 확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중소기업중앙회